

4^{학년}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2교시)

이름 :

학교명 :

감독 확인

응시번호 : -

◆ [가]와 [나]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높이 쳐 주고 본받고 싶어 하지요.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넘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조차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답니다.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들 곁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다친 동료가 있으면 여러 마리가 둘러싸고 거의 들어 올리듯 떠받치며 보살핌니다. 고래는 물에서 살지만 물 위로 몸을 내밀어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는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다친 동료가 있으면 기운을 차릴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준답니다. 고래는 그물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배 사이에 용감하게 뛰어 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기도 하죠.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요?

- 《국어 나 4-1》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중에서 -

[나]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윤서 자리로 우르르 몰려왔다.

“윤서야, 몰라서 미안해.”

“우리도 같이할게.”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설득할 거야.”

윤서가 모처럼 밝게 웃었다. 나는 윤서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긐했다.

“애들이 놀릴까 봐 걱정했는데……. 고마워. 발표하길 잘했어.”

(중략)

온갖 빛깔 풍선이 꽃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피켓들 사이로 엄마가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금 떨면서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을 읽었다.

‘대형 마트 좋아요. 그런데 특수학교 먼저! 학교잖아요?’

“ㅋㅋㅋㅋ. 역시 우리 엄마야.”

나는 술이에게 엄마가 들고 있는 피켓에 써진 글을 읽어 주었다.

엄마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엄마 모임에 대한 호기심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꼭 참았다. 찬희 엄마도 있고 다른 아이들 엄마 아빠도 보였다.

- 《학교잖아요?》 중에서 -

1. [가]에 나타난 고래의 행동과 [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공통점을 찾아 쓰세요.

2. 1번에 쓴 내용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내용을 담아 《학교잖아요?》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

